

지에스이피에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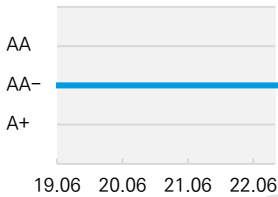
평가일 2022.06.24

평가담당자

이승민 애널리스트
☎02-787-2245
seungmin.lee@kisrating.com

홍석준 실장
☎02-787-2224
sjhong@kisrating.com

등급변동추이(무보증사채)



유효 등급

무보증사채 **AA-/안정적**

평가 개요

평가대상	종류	현재등급	직전등급	비고
무보증사채	정기	AA-/안정적	AA-/안정적	제18-2회 외

주요 재무지표

구 분	K-IFRS(별도)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1.03	2022.03
매출액(억원)	10,250	9,331	7,806	12,343	2,728	5,778
영업이익(억원)	1,274	1,325	1,167	2,123	355	2,555
EBITDA(억원)	2,045	2,060	1,888	2,967	554	2,783
자산총계(억원)	20,492	21,565	23,935	24,848	23,343	24,904
총차입금(억원)	11,509	12,062	14,037	13,325	13,037	11,023
영업이익률(%)	12.4	14.2	14.9	17.2	13.0	44.2
EBITDA/매출액(%)	19.9	22.1	24.2	24.0	20.3	48.2
EBITDA/이자비용(배)	6.5	7.5	7.2	10.2	7.5	43.4
총차입금/EBITDA(배)	5.6	5.9	7.4	4.5	5.9	1.0
부채비율(%)	164.3	156.3	175.9	151.5	167.0	131.6
차입금의존도(%)	56.2	55.9	58.6	53.6	55.8	44.3

주1) EBITDA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 대손상각비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2) 2020.12는 제약비발전정산금 계정 분류 변경(영업외수익 → 매출)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기준

평가 의견

한국신용평가는 정기평가를 통해 지에스이피에스(이하 '동사')의 제18-2회 외 무보증사채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동 신용등급은 자체신용도와 동일하며, 주요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 직도입 LNG 발전설비 중심의 우수한 사업경쟁력
- LNG 설비의 원가경쟁력과 SMP 상승에 힘입은 영업실적 호조
- 바이오매스 발전 확충을 통한 사업안정성 제고
- 대규모 투자 종료, 확대된 영업현금흐름 기반의 재무부담 축소

Outlook – 안정적

직도입 LNG 발전의 원가경쟁력, 바이오매스 발전 등의 사업기반, 점진적인 재무부담 개선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회사 개요

1996년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설립된 동사는 충남 당진에 LNG복합화력발전 설비(총 2,406MW급)와 바이오매스 발전소(총 210MW급)를 운영하고 있다. 동사의 최대주주는 (주)GS(지분율 70%)이며, OQ SAOC(舊 Oman Oil Company, 지분율 30%)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주요 등급논리

직도입 LNG, 바이오매스 발전 등에 기반한 사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가 운영하는 LNG 복합화력발전기(당진 1~4호기, 총 2,406MW)는 변동비 반영 시장(Cost Based Pool, 'CBP')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당진 4호기의 경우 직도입 LNG를 이용하고 있어 사업경쟁력이 우수하며, 2021년 4월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이 종료된 당진 1호기는 2021년 11월 한국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 계약(계약기간 4년)을 체결하여 직도입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동사 영업실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동사는 바이오매스 발전기 1,2호기(총 210MW)를 통해 사업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로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를 발급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 의무이행에 대한 정부정산을 받거나, 장기계약 또는 현물시장에 판매하고 있어 수익구조가 안정적이다.

SMP 급등에 따른 대규모 이익창출에도 최근 전력시장 개편에 따른 실적변동성이 내재한다.

최근 유가 및 LNG 현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SMP 급등으로 당진 4호기의 전력량요금 마진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2021년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2,12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평균 SMP가 170원/kWh를 상회한 2022년 1분기에는 당진 4호기와 더불어 개별요금제를 통한 LNG 도입을 시작한 당진 1호기가 우수한 가동실적을 기록하면서 2021년 연간 영업이익에 근접하는 수준의 영업실적을 시현하였다.

다만, 최근 용량요금 산정기준 변경,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 신설, 실제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 등 LNG발전사에 비우호적인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2022년 하반기부터 주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용량요금, 전력량 마진, 계약비발전정산금 등 축소로 인해 동사 영업실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규모 투자 종료, 확대된 영업현금흐름으로 재무부담을 축소하고 있다.

2020년까지 바이오매스 2호기 건설 관련 CAPEX(약 2,900억원)와 연간 400억원 내외의 배당금 지급으로 차입금 감축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2021년부터는 바이오매스 2호기 투자가 마무리된 가운데 영업창출현금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 3월 말 별도기준 순차입금이 8,108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영업현금흐름을 통한 점진적인 재무부담 축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Key Monitoring Indicators

정부의 전력시장 정책변화가 동사의 사업기반과 영업성과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 영향, REC 가격 수준에 따른 바이오매스 영업실적 추이, 차입금 규모 및 재무구조 개선세 지속 여부 등이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다.

구분	등급 변동 요인
상향 가능성 증가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시장 개편을 포함한 정부정책, 발전연료 수급환경 등 우호적인 영업여건 유지 발전원 및 연료조달의 다변화, 에너지전환 대응 수준 강화, 발전부문 이외의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한 큰 폭의 사업안정성 제고 『순차입금/EBITDA(3년평균)』 7배 미만 지속
하향 가능성 증가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우호적 전력시장 환경 지속 영업현금창출력 저하로 외부자금 조달이 예상보다 확대 『순차입금/EBITDA(3년평균)』 12배 초과

Key Monitoring Indicators – 별도기준

	2018.12	2019.12	2020.12	2021.12	상향 가능성	하향 가능성
순차입금/EBITDA(3년평균)(배)	6.3	5.5	5.3	4.1	7배 미만	12배 초과

주1) 분기별로 EBITDA 차이 큰 점 감안하여 2022년 1분기 지표는 산출하지 않음
 2) 2020.12는 제약비발전정산금 계정 분류 변경(영업외수익 → 매출)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기준

주) 당사가 제시하고 있는 Key Monitoring Indicators는 평가대상 회사의 신용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실제 신용등급 결정 시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정량 및 정성 변수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기존에 설정된 KMI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용등급이 반드시 조정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바랍니다.

Key Rating Considerations

직도입 LNG 발전설비 중심의 우수한 사업경쟁력

전력산업은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공성이 매우 높으며, 전력계통의 설계 및 운영이 정부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영업기반이 안정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충남 당진에 LNG 복합화력발전기인 당진 1~4호기(총 2,406MW)와 바이오매스 발전 1,2호기(총 210MW)를 운영하고 있다. 당진 1~4호기는 변동비 반영시장(Cost-Based Pool, 이하 'CBP')에 참여하여 용량요금과 함께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이하 'SMP')으로 전력량요금을 정산받고 있다. CBP 발전기에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SMP와 변동비 차이, 이 용률 등에 따른 수익변동성이 내재하지만, 당진 4호기의 경우 900MW급의 최신식 발전설비 및 직도입 LNG를 통한 높은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LNG 발전설비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경쟁력이 우수하다.

한편, 당진 1호기의 경우 2021년 4월 기존 한국전력공사와의 20년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 종료 이후 CBP시장에 진입하였다. 과거 대비 실적변동성은 커졌으나, 2021년 11월 한국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 계약(계약기간 4년)을 체결하여 직도입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동사 영업실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발전설비

구분	발전방식	사용연료	설비용량	비고
1호기	복합화력	LNG(개별요금제)	538MW	2001년 4월 상업운전, CBP 방식 판매
2호기	복합화력	LNG(평균요금제)	550MW	2008년 3월 상업운전, CBP 방식 판매
3호기	복합화력	LNG(평균요금제)	415MW	2013년 8월 상업운전, CBP 방식 판매
4호기	복합화력	LNG(직도입)	903MW	2017년 4월 상업운전, CBP 방식 판매
바이오매스 1호기	신재생	바이오매스	105MW	2015년 8월 상업운전, 생산전력 전력거래소 의무구매, REC 판매
바이오매스 2호기	신재생	바이오매스	105MW	2020년 12월 상업운전, 생산전력 전력거래소 의무구매, REC 판매

자료: 회사 제시

LNG 설비의 원가경쟁력과 SMP 상승에 힘입은 영업실적 호조

2017년 직도입 LNG를 사용하는 당진 4호기의 상업가동 이후 용량요금 인상,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SMP 상승,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 등이 수익구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SMP 하락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2021년에는 유가 및 LNG 현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SMP 급등(2020년 평균 68.4원/kWh → 2021년 평균 93.5/kWh)에 힘입어 당진 4호기의 전력량요금 마진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2,12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평균 SMP가 170원/kWh를 상회한 2022년 1분기에는 당진 4호기와 더불어 개별요금제를 통한 LNG 도입을 시작한 당진 1호기가 우수한 가동실적을 기록하면서 2021년 연간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의 영업실적을 시현하였다.

영업실적 - 별도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1.03	2022.03
매출액	10,250	9,331	7,806	12,343	2,728	5,778
영업이익	1,274	1,325	1,167	2,123	355	2,555
EBITDA	2,045	2,060	1,888	2,967	554	2,783
영업이익/매출액	12.4	14.2	14.9	17.2	13.0	44.2
EBITDA/매출액	19.9	22.1	24.2	24.0	20.3	48.2

주) 2020.12는 제약비발전정산금 계정 분류 변경(영업외수익 → 매출)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기준 자료: 공시자료

한편, 최근 LNG발전사에 비우호적인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동사의 향후 영업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발전연료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용량요금 산정기준 변경,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 신설,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 등 주요 제도가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용량요금, 전력량 마진, 제약비발전정산금 등의 축소로 인해 LNG발전사의 영업실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동사의 경우 SMP 급등기에 직도입 LNG를 통해 대규모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계통제약에 따른 제약비발전정산금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주요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 확충을 통한 사업안정성 제고

CBP 발전기와 더불어 2015년부터 바이오매스 1호기를 운영한 동사는 2020년 말 바이오매스 2호기가 상업가동을 개시함에 따라 바이오매스 발전의 사업기반이 강화되었다. 바이오매스 발전의 경우 생산전력은 전력거래소가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전력생산 중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발전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가 부여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 의무이행에 대한 정부정산을 받거나, 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2020년 12월부터 REC 가중치가 높은 바이오매스 2호기의 상업가동이 개시됨에 따라 2021년 REC 매출은 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1년 5월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상한비율 인상에 따라 REC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 전력시장 변화에 따른 실적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문별 매출 - 별도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1.03	2022.03
전기	9,555	8,735	7,277	11,394	2,625	5,666
REC	695	596	528	949	103	112
합계	10,250	9,331	7,806	12,343	2,728	5,778

주) 2020.12는 제약비발전정산금 계정 분류 변경(영업외수익 → 매출)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기준 자료: 공시자료

대규모 투자 종료, 확대된 영업현금흐름 기반의 재무부담 축소

2017년 당진 4호기 상업가동에 따른 현금창출력 개선에도 바이오매스 2호기 건설 관련 CAPEX(약 2,900억원)와 연간 400억원 내외의 배당금 지급이 이어지면서 2020년까지 차입금 감축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2021년부터는 대규모 배당금 지급(2022년 1분기 1,032억원)에도 바이오매스 2호기 투자가 마무리된 가운데 영업창출현금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 3월 말 별도기준 순차입금이 8,108억원으로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132%로 하락하였다.

최근 비우호적인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동사의 현금창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주주사에 대한 배당금 지급 규모가 확대될 경우 차입금 감축 속도가 둔화될 수 있으나, 당분간 경상적인 CAPEX만 발생하는 가운데 당진 1호기와 4호기의 가격경쟁력과 바이오매스 발전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영업현금흐름을 통한 점진적인 재무부담 축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차입금 및 주요 재무지표 - 별도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03
총차입금	11,509	12,062	14,037	13,325	11,023
순차입금	10,592	10,855	10,503	9,486	8,108
총차입금/EBITDA(배)	5.6	5.9	7.4	4.5	1.0
순차입금/EBITDA(배)	5.2	5.3	5.6	3.2	0.7
부채비율(%)	164.3	156.3	175.9	151.5	131.6
차입금의존도(%)	56.2	55.9	58.6	53.6	44.3

주) 2020.12는 제약비발전정산금 계정 분류 변경(영업외수익 → 매출)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기준 자료: 공시자료

계열의 유사시 지원가능성 미반영

동사가 속한 GS그룹은 자산기준 국내 8위의 대기업 집단으로서 에너지, 유통, 건설 등 핵심 사업부문에서 확고한 시장지위와 사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력과 보유 자산에 기반한 재무안정성도 우수한 수준이다. 다만, 동사는 그룹 내에서 신용도가 높고 지원 주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열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은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 및 재무 전망

2022년 하반기부터 용량요금 산정기준 변경,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 신설,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용량요금, 전력량 마진, 제약비발전정산금 등 축소로 동사 영업실적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당분간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이 없어 경상적인 CAPEX만 발생하는 가운데 당진 1호기와 4호기의 가격경쟁력과 바이오매스 발전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영업현금흐름을 통한 점진적인 재무부담 축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Mapping Grid 적용 결과

민자발전산업 Mapping Grid	AAA	AA	A	BBB	BB	B
Factor 1. 정부정책 및 사업안정성						
정부정책 및 제도		○				
설비용량	○					
Factor 2. 사업경쟁력						
전력수급구조 및 사업경쟁력		○				
에너지전환 대응 수준		○				
Factor 3. 수익성						
EBITDA/고정자산		○				
Factor 4. 재무안정성						
EBITDA/이자비용		○				
순차입금/EBITDA			○			
부채비율			○			
차입금의존도			○			
재무용통성		○				
Mapping Grid 적용 결과		◎				

주) 별도기준

동사의 신용등급에는 상기 민자발전산업 평가방법론에 따른 Mapping 결과와 더불어 최근 전력 시장 개편 추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업구조와 온실가스 배출권, 제약비발전정산금 등의 변화로 인한 사업 및 재무구조의 변동성이 반영되어 있다.

주) 상기 Mapping Grid는 업종별 평가방법론에서 고려하는 주요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으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최종 신용등급 도출과정에는 여기에 제시된 것 외의 여타 사업 및 재무적 요소, 미래 실적 전망, 계열의 지원가능성, 각 발행자와 당해 채무의 특수성 등 다양한 평가요소가 추가적으로 감안됩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Mapping Grid 적용 결과와 실제 신용등급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바랍니다.

본 평가에는 **현행 KIS 신용평가 일반론, 민자발전산업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평가방법론은 "www.kisrating.com / 리서치 / 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Confidential
(Draft)

유의사항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당사”)가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financial obligations)를 발행사/기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 기타 다른 위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신용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채권평가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신용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신용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확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가 부여한 특정 신용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재생산, 배포장,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